

문화방송 노보

무단협 1281일째

타임오프해지 213일째

조능희위원장단독피업 108일째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노사협의회 지상중계: 무책임한 안광한 경영진 진면목을 드러내다



지난 주 7월 12일 노사협의회가 있었다. 노사협의회에 회사는 안광한 사장과 임원진이, 노동조합은 조능희 위원장과 집행부가 참석했다. 노동조합은 업무직·연봉직 소송 관련 회사가 밝힌 ‘완전히 동등한 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그동안 회사에 공문을 보내 회사의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날 노사협의회에서 재차 확인을 요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안광한 사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나머지 임원들도 애매모호하게 둘러댔다.

‘완전히 동등한 보상’의 의미 묻자 안광한 사장 묵묵부답(默黙不答)

오히려 안광한 사장은 지난 노보 208호에 회사 성명서의 내용을 직접 인용으로 따옴표를 치고 자신의 사진에 말풍선을 띄워, 마치 자기가 직접 회사 성명서의 내용을 말한 것처럼 처리했다며 ‘조작’이고 ‘왜곡’이라고 노동조합을 비난했다. 지난 노보 208호에서 조합은 6월 16일자 회사 성명서에서 회사 공식 입장으로 밝힌 “... 판결이 확정된다면 회사는 소송참가와 무관하게 전사 업무직·연봉직 직원들에 대해 3개 수당을 완전히 동등한 수준으로 보상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1면 헤드라인으로 실은 바가 있다.

회사의 공식 성명서에 천명된 회사 입장이기에도 (주)문화방송의 대표이사인 안광한 사장이 당연히 재가했고 책임질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사의 제목도 “안광한 사장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였다.

노동조합은 업무직·연봉직 소송 관련 회사 성명서가 파격적인 입장을 천명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판단했고, MBC의 수장인 안광한 사장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완전히 동등한 보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회사가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고, 약속을 노사 간의 문서화된 합의로 확인하고자 요청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경영진이 보인 태도는

그야말로 무책임 그 자체였다. 특히 안광한 사장은 회사 성명서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을 회피하며, 왜 자기가 그 말을 직접 한 것처럼 표현했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안광한 사장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다음표까지 쳐져 있네?

노동조합 문화방송의 입장을 적은 겁니다. 다른 겁니까?

안광한 사장 그럼 같습니까?

.....

안광한 사장 회사 입장이예요. 회사 입장

노동조합 이 내용도 회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입장이라니까요.

안광한 사장 개인 안광한이라는 인격체와 문화방송은
다른 거예요.

안광한 사장, 성명서의 내용을 알지도 못한 듯

참다못한 노동조합이 회사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안광한 사장이 사전에 인지하거나 결재하기는 했는지 물어보자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성명을 냈어요. 그럼 그 성명을 대통령 이름으로 따옴표해서 하면 맞습니까?”라고 동문서답(東問西答) 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재차 회사가 밝힌 ‘완전히 동등한 보상’ 약속을 대표 이사로서 안광한 사장이 책임을 질 거냐고 물어봤지만, 안광한 사장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결국 노사협의회에서 안광한 사장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안광한 사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노동조합의 판단으로는, 안광한 사장은 회사 성명에서 밝힌 회사의 공식 입장이 대표이사인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듯 싶다.

회사 성명서의 엄청난 보장 약속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 약속!

노동조합은, 회사에서 (주)문화방송의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성명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결재라인과 검토를 거쳐 발표되는 것이며, 대표이사인 안광한 사장은 당연히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성명서에서 약속한 내용이 엄청난 만큼 그 말의 무게와 책임의 막중함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들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날 노사협의회에서 그 믿음과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어쩌면 6월 16일자 회사 성명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과 결재라인의 검토를 거치지도 않고 일부 ‘책임 지지 않는’ 실무 국장선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렇다면 안광한 사장은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말 믿기지 않지만.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여러 차례 노동조합이 확인하려고 했지만 의구심만 남긴 채 끝내 확인작업은 불가능했다. 안광한 사장은 노보 208호에 대해서만 항의했고, 이후 노동조합이 ‘완전히 동등한 수준의 보상’에 대해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을 때 철저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소송 참여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은 천지 차이

조능희 위원장은, 회사가 성명에서 밝힌 ‘완전히 동등한 수준’이 어떤 것인지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지난 7월 13일자 노동조합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현재 1심 승소한 97명의 업무직·연봉직 조합원들은 2011년까지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은 지연이자까지 합산하면 거의 4천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위원장
포견지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조능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원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요즘 인사고과 기간입니다. 사원 평가를 이용해 조합원을 탄압하는 수법은 몇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고과와 인사불이익이 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에는 차근차근 불법사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검찰과 노동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불법은 반드시 응징될 것입니다.

불공정방송, 불법행위, 위법행위, 부당행위, 권리남용, 공금낭비, 대졸신입 채용거부... 공영방송사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지금, 이제는 분노보다는 그저 코웃음만 나옵니다. 조합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치솟는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냉철하게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다면, 1년 4개월이 지난 요즘은 처음에 느껴졌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서 이것이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저 한심한 웃음만 나올 때에는, "이거 내가 조합일 제대로 하는 건가" 라고 자문도 해봅니다.

부처님 말씀에 화(禍)는 화살과 같은 것이고, 그 화살을 남에게 쏘면 반드시 돌아와 내 몸에 꽂힌다' 라는 법언(法言)이 있습니다. 그러니 득도의 경지를 맛 볼 수 있는 조합 일을 하게 된 제가 복 받은 것이러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자들의 적반하장 사원 징계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와 김재철 수하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된 트로이컷 사찰 대법 판결로, 회사는 조합에 4천 4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덕분에 조합 투쟁기금이 늘었습니다.

대법판결문에는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자를 제외하면 현재 MBC의 최고 경영진과 간부들입니다. 안광한 사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 조규승 신사업개발센터장, 차재실 콘텐츠사업국 부국장.

이들의 불법행위로 회사 명예가 실추되었고 회사가 금전적 손해까지 입은 것이 명백하니, 이것이야말로 안광한 경영진이 전가의 보도로 마구 휘둘러온 '징계사유'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징계합니까?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징계할까요, 아니면 임원은 빠지고 사원만 징계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경영진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은 사적인 친교 자리를 위해 거액의 법인카드를 썼다고 자인(自認)했습니다. 그는 MBC 사원들의 법인카드 지출을 관리하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이고 징계인사위원입니다.

방송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회사를 비판한 사원은 최고수위로 징계 해고하면서, 신뢰도와 공정성 조사에서 명백히 저성과를 내고 있는 보도와 시사교양 책임자들은 꾸준히 영전됩니다. 해고와 징계를 자행한 간부와 임원들

은 대법에서 무효 판결이 난다 해도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이대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안광한 경영진의 기본과 원칙입니다.

반드시 응징될 노조탄압행위

조합원 동지 여러분,
트로이컷 불법사찰 판결과 같은 날, 대법원은 발전노조가 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서발전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와 당시 사장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회사가 발전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어용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밝혔습니다. 동서발전은 조합원들을 배, 사과(겉은 빨강고 속은 하얀), 토마토로 분류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이 지적한 불법행위는 인사고과와 이에 따른 원거리 전보 등과 같은 인사불이익(근무형태 변경, 기피 보직 부여, 사업소 이동, 인센티브 철회 배제 등)입니다. 회사는 조합원들이 노조에 잔류하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차별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 부당노동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장 뿐 아니라 인사노무 담당자들도 져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갑을 오토택의 전 대표 이사는 부당노동행위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노조 와해를 위해 경찰·특전사 출신 30여명이 포함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이렇게 법정구속으로도 응징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국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공정방송은 방송노동자의 근로조건입니다. 우리 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광한 경영진이 각종 위법 부당행위로 우리 조합을 파괴하려는 이유입니다.

MBC를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시켜서 방송을 경영진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사사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시청자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받은 63대 조사(祖師) 서산대사는 '부모와 스승 그리고 시주인 백성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살생이 금지된 승려의 몸으로 조차 왜적과 싸우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1면에 이어>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무직·연봉직 구성원들에게 회사가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대법에서도 1심 판결 결과가 유지됐을 때, 회사가 수당을 모든 업무직·연봉직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소급은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소급 연한도 소송제기시점에서 3년까지이다.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더라도 3년을 감안하면, 2013년부터만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1심 승소한 97명의 업무직·연봉직 조합원들과는 보상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 회사가 공식입장으로 '완전히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천명했으니 노동조합 입장에선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원들, '완전히 동등한 수준의 보상'에 관심없어

안광한 사장은 입을 다물었고 몇몇 임원들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 답변했다. 백종문 본부장은 처음에는 "2심, 3심에서 우리(회사)가 이길 것이라 확신하고 믿고 있지만, 만약에 진다면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 주겠다는 것이 회사 경영진의 방침"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계속 물어보자 말이 바뀌어갔다.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저희는 2심에서 회사가 분명하게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도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면, 소송을 한 사람들과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해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노동조합 그럼 2011년부터 쌓인 임금 채권을 소송을 걸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 주실건가요?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다른 임원들까지 가세하여 주제에 벗어나는 엉뚱한 얘기를 하며 논점을 흐렸다. 김현중 편성제작본부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지리라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제기하는 것 이건 소모적인 논란만 되고"라며 오히려 노동조합을 공박했고,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말씀을 잘못 드리면 (노동조합이) 소송에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소송당사자인 회사에 무리하게 답변을 요구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노동조합이 회사가 업무직·연봉직 구성원들의 소송참가를 막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한 게 아니냐고 임원들에게 항의하자 김성근 방송인프라본부장이, 회사가 명확한 입장이 있는데 소송 중인 사항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노동조합 회사의 글을 성명을 게시할 땐 충분히 명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글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토대로 하면 '완전히 동등한 수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소송 참가를 막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동등한 수준이다 라고 회사가 얘기한 것으로 말고는 조합이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김성근 방송인프라본부장 명확한 입장이 있는데

노동조합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실 수 없으면서 쓰신거죠?

김성근 방송인프라본부장 다 분석 했는데 소송중인 사항이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노동조합 그럼 이런 얘기도 하지 마셨어야죠.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없는 얘기를 약속만 하시고 소송 중이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지연이자 감수하며, 1심 승소 조합원들에게 수당 지급도 회사 거부

1심 승소한 업무직·연봉직 조합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참고로 지역사에서 그동안 당연지급했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을 때, 회사는 지급하지 않았던 특별상여금을 1심 판결만 보고 지급한 사례가 있다. 통상적으로 연 15% 가량의 지연이자를 감안했을 때, 2심 또는 대법에서 회사가 승소하면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지급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행이다. 업무직·연봉직 조합원들의 지급 수당 총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연 4억5천 가량의 지연이자가 계속 쌓이게 된다. 당연히 이 이자금액은 회사의 손실이 된다.

조능희 위원장 연 이자가 15%입니다. 하루에 125만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항소심 대법까지 판결되면 하루에 125만원씩 쌓이는 것이 그대로 회사손실로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걸 지금 지급 하신 다음에, 나중에 회사에서 이길 경우 다시 돌려받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2심과 3심은 다르게 나올 것이고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굴복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1심 판결 나서 돈을 지급했다고 하면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조능희 위원장 왜요?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큰 문제가 생기죠.

조능희 위원장 왜요?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조능희 위원장 얼마든지 가능하죠. KTX 대법에서 판결 나서 그것도 있고.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회사 측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 라는 겁니다.

이은우 기획국장 조합원 승진차별 자인

노동조합이 조합원 승진차별 문제를 거론하자 임원들은 극구 부인했다.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승진하는 것이지, 조합원이라고 2012년 파업에 참여했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MBC 구성원이라면 조합원 승진차별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임원들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회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진을 누락시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합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2012년도 파업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평가를 하고 승진에 반영합니다. ...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조합원이라고 해서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그런 일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은우 기획국장이 불쑥 끼어들더니 폭탄발언을 했다.

이은우 기획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조합이나 조합의 간부들이나 회사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회사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항상 갖고서 늘 조합원들에게 주입시키잖아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회사와 조직에 있어 승진을 시키는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태도나 이런 것들이 우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없죠.

이은우 기획국장의 뜬금없는 자기 고백에 오히려 임원들이 더 당황한 듯 했다. 노동조합이 보기에는 이날 노사협의회 석상에 있던 안광한 사장과 임원들, 보직국장들 중에 가장 솔직한 발언이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하지만 노동조합도 일순 당황한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비상식적인 발언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도 회사의 임원진과 보직간부들이 이런 식의 '부당노동행위'를 자인하는 발언을 공식적인 노사협 석상에서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가? 무지해서 용감한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인가? 그래도 명색이 공영방송 MBC의 '기획국장'이다. 노동조합은 참담할 따름이다.

때우기에 급급한 노사협의회. 2시간 만에 종료

안광한 사장과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선약을 핑계로 각각 저녁 6시 5분과 6시 8분에 나가버렸고 곧이어 6시 15분에 노사협의회는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노동조합은 이날 미흡하게 얘기한 안전을 추가로 더 논의할 수 있게 차수변경을 하여 노사협의회를 한번 더 개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은 3분기에 보자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축해버렸다. 석달에 한 번 만나는 노사협의회는 이렇게 2시간 만에 끝났다.

노동조합, 단체협약 실무교섭회의를 '본교섭회의'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

지난 7월 13일 단체협약 실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실무교섭이 진전이 없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현재의 실무교섭회의를 안광한 사장과 조능희 위원장이 참석하는 본 교섭회의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안광한 경영진이 조합 집행부의 손발은 타임오프 해지로 꽁꽁 묶어 버리고, 조합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개악안(改惡案)을 던져준 채 협상을 해태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백종문 본부장은 자신이 전권을 위임받은 단체협약 실무 교섭의 최종 책임자라며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섰지만, 노동조합은 안광한 사장에게 보고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뽐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논의 후 결과를 조합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제(7월 18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교섭 본 회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회사에 보냈다.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

노동조합은 총 7편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2015년 1월~2016년 5월 사이 방영분

대구MBC와 광주MBC가 공동제작한 영호남 지역공감 토크쇼 <달빛 소화제>(연출: 이 중헌, 이경찬)가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수상에는 안동MBC의 다문화 부부 토크 퀴즈 프로그램 <깨소금>(연출: 서현)과 제주MBC 창사기획특집 <제주어의 지꺼진 반란>(연출: 김훈범) 2편이, 장려상에는 목포MBC 한일수교 50주년 특집 다큐

멘터리 <명량, 끝나지 않은 이야기>(연출: 김윤상), 울산MBC <돌직구 40 - 죽음의 분진... 그 후 2년>(연출: 이영훈, 유희정), MBC강원영동 신년특집 <청춘, 길을 묻다 2>(연출: 하현제) 등 3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상으로 원주MBC 창사 45주년 라디오특별기획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연출: 박지현)이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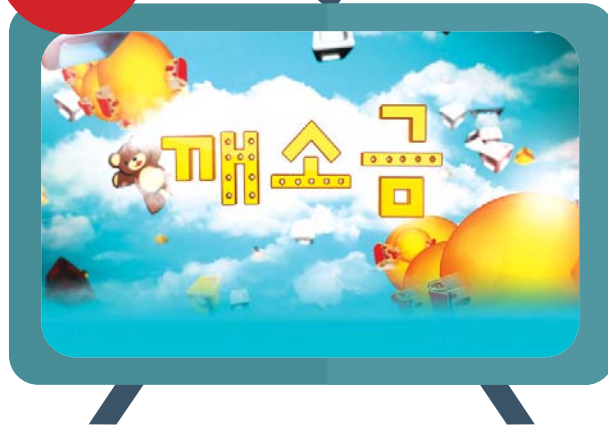
최우수상



대구MBC · 광주MBC 공동제작
영호남 지역공감 토크쇼 <달빛 소화제>
연출 : 이중헌(대구MBC), 이경찬(광주MBC)

대구MBC와 광주MBC가 영호남의 사회적 통합과 소통을 위해 공동 기획 · 제작한 영호남 지역공감 토크쇼. 영호남을 대표하는 이야기꾼들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영호남의 생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 공감하며 사회, 문화, 정서적 유대에 기여함.

우수상



안동MBC
다문화 부부 토크 퀴즈 프로그램 <깨소금>
연출 : 서현

‘국내 최초’ 로 시도되는 다문화 부부 토크 퀴즈 프로그램. 다문화인들에 대한 편견을 덜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이웃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함.

우수상



제주MBC 창사기획특집
<제주어의 지꺼진 반란>
연출 : 김훈범

제주어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어만의 맛과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줌. 표준이 아닌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 제주만의 삶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주어의 언어 즉, 제주어 보존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장려상



목포MBC 한 · 일수교 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명량,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연출 : 김윤상

이순신과 구루시마미치후사의 결전, 명량해전. 당시 전사한 일본 수군들의 시신이 묻혀있는 진도 '왜덕산' 이야기를 취재함. 일본 수군의 고향 주민들과 진도 주민들 사이의 따스한 교류를 보여줌으로써 명량 해전 그이후의 한 · 일 간 '평화와 화해'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

장려상



울산MBC
<돌직구 40 - 죽음의 분진... 그 후 2년>
연출 : 이영훈 유희정

국내 제1호 공해병인 '온산병' 이 발생한 후 30년 넘게 이어져온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 실태를 최초 보도. 대표적 대기오염 물질인 비산분진의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를 심층 취재하고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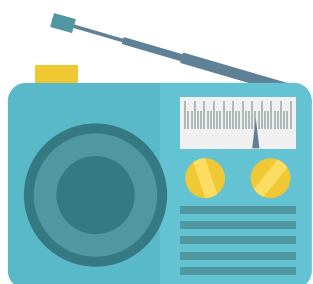
장려상



MBC강원영동 신년특집
<청춘, 길을 묻다 2>
연출 : 하현제

인생의 초반에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방향하는지 그들에게 꿈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청년들을 위한 여행다큐멘터리이자, 청년들의 성장과 감동을 전하는 맞춤형 미니 강연프로그램.

특별상



원주MBC 창사 45주년 라디오특별기획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연출 : 박지현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어 버린 갑과 을의 문제, 그리고 감정노동자들의 상처와 현주소를 조명함.

민실위 선정 5월의 좋은 리포트상 수상작

시사매거진2580, 'SAT 유출, 돈으로 사는 만점'

- 서울지부 **왕종명 손재일 조합원**
-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 SAT와 ACT의 시험지가 국내 학원가에 대량 유출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취재해 고발했고, 이후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음.」



왕종명 조합원 손재일 조합원

수상소감

“저도 실물로 보기는 처음입니다” S.A.T 학원을 10년 넘게 운영했다는 제보자가 시험지를 건네며 던진 말에 ‘기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SAT 시험지 유출 기사는 10년 전부터 잇을 만하면 나오던 터라 별 기대감 없이 제보자를 만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3년 치의 SAT 시험지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SAT 유전(有錢) 만점 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단초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험지가 강남 학원가에 어느 정도 떠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여 곳의 학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있는 집 자식은 실력이 아니라 돈으로 미국 명문대를 입학하고 있다’는 허망한 현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SAT 시험지 유출국이라는 낙인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또 다른 미국 수능시험 ACT 역시 시험지가 대량 유출돼, 강남 학원가에서 거액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대한민국의 강남 사교육 시장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그저 합격만을 좇아 장사하는 곳이란 걸 절감했습니다.

동료들이 선정해준 상이라 기쁨이 더 큼니다. 유창한 영어로 강남 SAT 학원가를 누비며 취재한 박솔지 작가와 시험지라는 정말 그림 재미 없는 아이টে를 예쁘게 포장해준 촬영기자 손재일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왕종명 조합원

뉴스데스크(광주), 5·18 36주년 기획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 광주지부 **김철원 김영범 조합원**
-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싸웠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던 ‘광주 밖 시민들의 이야기’를 뉴스데스크를 통해 10편에 걸쳐 기획 보도함.」



김철원 조합원 김영범 조합원

수상소감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가 형해화(形骸化)되는 요즘 같은 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예상보다 좋은 반응, 많은 호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다시금 확인한 사실은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5월 항쟁과 1987년 한국사회를 휩쓸었던 6월 항쟁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기념일이 되고, 폭도들은 유공자가 되고,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5.18은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획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의미는 갈수록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오늘날 뒷걸음질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광주를 알리려다 희생된 ‘광주밖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조명하다 보면 맥 빠져 보이는 민주주의에 생기가 돌지 않을까 해서 시도한 기획인데 피한 진심이 통한 듯해 뿌듯합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힘들게 쟁취돼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달성했다고 해서 저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가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피함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원 조합원

개혁 대상들이 개혁안을 찾는다고?

방문진 이사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조사 핑계로 유럽 3개국 외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여권 이사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연구조사 목적으로 유럽 3개국 출장을 다녀와서 주변의 편찬을 사고 있다. 공영방송 MBC 추락의 주범이자 개혁 대상인 방문진 여권 이사들이 유럽 선진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실태를 조사하고 왔더니, 방문진의 난맥상을 잘 아는 이들로서는 그 동기가 결코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혹자는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방문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자 일부 여권 이사들이 자신들의 임기(2018년까지)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조바심에,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해외로 외유를 떠나려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방문진 3연임 김광동 이사가 외유 주도

이번 외유의 배경을 살펴보면, 방문진 이사로 3연임을 기록 중인 여권 추천 김광동 이사가 올 초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선진 공영방송제도 조사연구' 소위원회를 꾸리면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 소위원회에서 여권 추천 이사들은, 선진 공영방송에 대한 연구가 우리 공영방송이 떠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세 명의 책임연구원을 선정해 방문진 이사들과 함께 영국·독일·오스트리아 3개국을 방문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야권 이사들이 "방문진 비호 아래 사내 양심세력을 내몰고 정권 홍보방송을 하는 게 문제의 뿌리인데 그런 사례가 선진국 어디에 있다고 찾아가냐?"며 반발했지만 여권 이사들은 일축하고 해외조사연구를 강행했다.

야권 추천 이사들의 반발에도 외유 강행

지난 6월 2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임무혁 사무처장이, 선진 공영방송 연구사업 경과를 설명하면서, 예산은 충분하니 가실 의향이 있으신 이사들은 동참하라고 보고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이사들은, 이미 2013년 국회에서 지배구조개선안이 마련돼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국회가 방문진에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구할 계획이 없을 것이고 또 인터넷과 도서관에 다 있는 자료를 수집하려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여권 추천 이사들이 다수결로 사업 강행을 결정해버리고 말았다.

책임연구원과 여권 이사(김광동, 유의선, 권혁철, 이인철 이사)등 모두 8명으로 꾸려진 해외조사단은 지난 7월 9일 영국 런던으로 출국하여 BBC 등을 방문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해 ORF(오스트리아 공영방송)를 방문했으며, 독일 마인츠로 이동하여 ZDF를 방문했다. 7월 17일 귀국하기까지 총 8일간의 해외일정이었다.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해외출장'으로 질타 받았지만 개선 없어

들리는 바로는 3개국 방문 비용만 최소 1억 원 가까이 소요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규정상 방문진 이사들의 경우는 비행기 좌석으로 비즈니스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이사 1인당 항공료만 1천 5백만 원 가량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전년도(2014년) 해외출장비로 5억 4천 4백만 원을 집행했다가 "방만한 해외출장"이라는 질타

를 받은 적도 있었다. 이런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여권 추천 이사들도 이번 조사방문에는 '관광성 일정'은 일절 잡지 말라고 방문진 사무처에 다짐을 해 놓았다는 후문까지 들리고 있다.

방문진 감사조차도 '해외출장 자제' 요청

하지만 방문진 내부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장비 총액이 10억 1천 3백만 원에 이르러 연 평균 2억 원 가량을 지출했는데, 이는 2015년 이사회 운영예산 5억 원과 비교하면 과한 액수라고 쓴소리가 적혀 있다. 또 2015년 예산에 해외조사비 1억 6천만 원에 자료수집비 등 모두 4억 8백만 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총예산 59억 3천만 원의 7%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정감사 지적과는 별개로 방문진 이사들이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방문진 여권 이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얼마나 잦았으면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진 감사마저 이런 고언(苦言)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염불보다 잣밥에만 관심있는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

그동안 방문진 이사들의 해외여행은, MBC와 방문진 해외행사 참여, 선진 해외방송사 견학, 국제 방송 페스티벌구경, 방송장비 전시회 관람, 우수 방송인 해외시찰 때 따라가기 등으로 이뤄졌는데, 방문진 이사만 3연임을 한 김광동 이사와 유의선 이사, 이인철 이사는 10기 방문진 출범 후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김 이사와 이 이사가 세차례, 유 이사가 두차례 방문진 지원으로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연구를 맡아 동행한 모 교수는 "취직만 알면 우리끼리 가야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데, 방문진 이사들이 여럿 동반한다고 해서 놀랐고 좀 부담스럽다면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교수도 "선진국에 가서 전문가들을 만난다고 하지만 달랑 한두 시간만는 자리에서 교차통역하고 하면 무슨 성과가 있겠으며 8명이나 몰려가면 상대 쪽에서 좀 놀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다는 후문이다.

방문진 사무처도 여권 추천 이사들만 웰빙족처럼 공적자금으로 해외여행을 수시로 나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방문진 관계자는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망가지는 우리 같은 사례가 선진국엔 없는데 벤치마킹하러 간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되고, 전문가들과 질문 답변할 것 같으면 여기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경비도 거의 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공영방송제도 연구 사업이 방문진에서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부 이사들이 그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단체로 가는 걸 보면 여권 추천이라 그런지 믿는 구석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노동조합은 개혁 1순위인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이 개혁안을 찾는다는 핑계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는 파렴치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공영방송 MBC를 지키라고 만든 방문진이 오히려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공영방송 MBC 추락에 앞장서 온 그간의 행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방문진 예산은 공영방송의 관리·감독을 위해 쓰라고 국민들이 위탁한 돈이다. 싹짓돈이 아니다. 방문진 이사장과 여권 추천 이사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마땅하다. 방문진 이사장과 여권 추천 이사들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